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장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선포하며 청년들에게 기독교 리더십을 교육하고 훈련하여
각 영역으로 진출시키는 일을 감당해 온 한국리더십학교,
설립부터 지금까지 15년간 이끌어 온 이장로 고려대 명예교수를
본지 발행인 김승욱 교수가 만나다.

인터뷰 | 김승욱 (본지 발행인)

김승욱(이하 김) 처음 이장로 교수님을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전국기독교수연합회에서 ‘이장로 집사입니다.’하고 자신을 소개하셨죠. 지금은 은퇴하시고 고려대 명예교수로, 한국리더십학교 교장으로 계시고요. 리더십학교를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를 여쭙어 봐도 될까요?

이장로(이하 이) 지금 한국리더십학교가 15기 중이니, 2001년 시작하여 1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꿈은 그보다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1975년, 학교를 시작하기 25년 전에 비전이 잉태되었습니다. 그 비전이 저를 이끌어 한국리더십학교가 탄생된 것입니다. 저는 그 비전을 주시고 지금까지 저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제가 크리스천이 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대학부 임원, 고아원·양로원 방문, 노방전도 등으로 한 주에 4~5일은 교회에서 살았는데 참 기쁘고 행복했었지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내고 나니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서 학부 때 부족했던 공부도 하고 진로 결정을 위한 시간도 가질 겸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그런데 1975년 대학원을 졸업할 무렵,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진로를 놓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였습니다. 성경을 여러 차례 통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이끌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들은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사람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그의 순종을 통해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지요.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물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새벽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칠 때에 성령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 너무 부끄럽고 슬펐습니다. 재수해서 들어간 대학생활이 재미가 없었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몰라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았고, 예수 믿는다면서도 정직하지 못했고, 다른 학생들처럼 컨닝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모욕을 당한 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요. 성령님의 깊은 탄식을 들으면서 삼사일 동안 쉬지 않고 애통해하며 지냈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을 묵상하는 중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라. 이를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 마침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뜻, 소명을 발견하였지요.

이 소명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를 놓고 계속 기도하던 중에 모세, 다윗,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 그런 크리스천 사회지도자를 양성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각 시대에, 각자의 상황과 삶 속에 부르심대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 그들을 양육해서 사회의 각 영역으로 보내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비전을 주신 것이지요. 그때가 1975년이었습니다.



김 리더십학교가 처음 시작한 때가 2000년이니까 1975년이면 무려 25년을 준비하신 거네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성경 속 인물들의 준비기간에 비하면 짧지요. 예수님은 30년을, 모세는 40년을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같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크리스천 사회 지도자를 양성하려면 오랜 기간 훈련받고 준비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꿈을 그려 보기 시작했죠.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전 그 꿈을 위해 가장 좋은 직업이 무엇일까 고민했어요. 전공인 경영으로 돈을 벌면 학교 설립도 할 수 있겠지만, 돈 버는 것은 제 달란트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공부는 할 수 있겠다 싶어 교수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경영은 일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효과적으로 하려면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 인생 경영을 위한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요즘 말로 하자면 인생의 로드맵을 그려 본 것이지요. 76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3차 10개년 계획의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1차 첫 10년의 목표는 교수가 되는 것, 이를 위해 미국으로 유학가서 경영학 박사가 되는 것이었고, 2차의 10년은 하나님이 쓰시는 교수가 되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교수를 쓰실까 고민하다가 그 기준을 학문적 탁월성과 캠퍼스 선교로 정했습니다. 제 전공인 국제경영학은 당시 경영학에서 신생 분야였고, 이 분야를 배워 한국에서 발전시켜야겠다 싶었지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고려대 캠퍼스를 기점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해 캠퍼스 선교사로 쓰임을 받고 싶었습니다. 3차 10년은 사회 지도자를 본격적으로 양성하자, 어떤 형태든 교육기관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아니라 큰 그림만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받고 있는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미국 뉴욕대에 입학하고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참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을 겪었습니다. 졸업하고도 한 동안은 뉴욕을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저와 온 가족이 눈물로 지낸 세월이었지요. 1986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 교수로 오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로 고려대에서 캠퍼스 선교사를 자임하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성경공부 모임을 시작으로 고려대 채플을 열고, 고려대 기독교연합회, 고려대 기독교수회 등을 조직하며 고려대 복음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의 향구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김 교수님께서 걸어 오신 인생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리더십학교에 녹아 있네요.

이 그렇습니다. 설립 전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물론 단번에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니다. 그 여정 중에는 기독교경영연구원(이하 기경원)도 있었고, 학원복음화협의회(학복협)도, 캠퍼스 사역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무엇보다도 먼저 저를 훈련시켰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준비시키셨습니다.

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각 영역과 각 영역의 학문분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권하에,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으로 학문의 영역을 재조명하는데 관심이 있어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학문보다는 사람 그 자체에 관심을 갖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키워야겠다는 꿈으로 리더십학교를 시작하셨다 하셨는데 말처럼 쉽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꿈도 비전도 좋지만 학교를 설립하려면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적어도 학교를 설립하려면 재정과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이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한국리더십학교(이하 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죠. 아시겠지만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수, 학생, 재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교수진은 전국기독교수업연합회(전기연)에서 알게 된 교수님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기연은 1988년 겨울에 각 대학에서 성경공부모임을 주도하는 교수님들이 온누리교회 구내식당에 모여서 식사교제를 하면서 시작되었고 겨울방학에 수련회를 열고 캠퍼스선교사례를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장로교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교류했던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리더십학교의 강사로 수고해 주시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한 가지 일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1996년 설립된 기독교경영연구원(기경원)입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무렵 기독교경영학을 연구하던 교수들을 주축으로 젊은 기독교실업인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를 기업세계 위에 구현하자는 모토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위에

서 말한 전기연, 장로교신학대학교, 기독교경영연구원에서 만난 교수님들이 한국리더십학교를 섬기는 탁월한 교수님들입니다.

김 기독교경영연구원의 처음 설립자가 교수님이시군요.

이 동역자들과 함께 설립한 것이지요. 기경원의 전신은 기독교경영연구회라 할 수 있지요. 전기연에서 만난 경영학 교수님들이 1990년부터 기업경영과 성경적 원리를 연구하면서 책도 번역하고 출판하다가, 1996년에 연구회 회원들을 포함해서 서울지역의 우수 대학에서 초빙한 크리스찬 경영학 교수들, 그리고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크리스찬 전문인, Y-CBMC 회원 등 60여 명을 발기인으로 해서 설립한 것이 지금의 기경원입니다. 당시 교수의 월급이 약 200만원이었는데, 50여 명이 기금을 모아 조성했습니다. 초대원장은 제가 하고 연세대 송자 총장님을 이사장으로 모셨습니다. 기경원도 올해 창립 20주년이 되는군요.

김 조금 더 실제적인 리더십학교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지금까지 15기입니다. 리더십학교에는 주로 어떤 학생들이 오나요?

이 학생 모집은 15년 전에도 힘들었지만, 지금도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학생들은 주중에는 각자 소속된 대학에서 수업을 하고, 토요일에 하루 종일 한국리더십학교에서 신학, 리더십 그리고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여 조별 토론과 현장학습을 합니다. 1년 동안 토요일을 훈련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학생들에게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뜻 지원하려고 하지 않아 모집이 힘듭니다. 초창기에는 고려대기독교학생연합회(고기연)를 비롯한 서울지역 각 대학의 기연 임원들과 선교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학교의 졸업생들이 교회



와 대학에서 크리스천 친구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 기수의 정원은 42명 내외로 하고 가능한 남녀비율을 1:1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학부생이나 졸업생, 또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무엇보다 1년 동안 매주 토요일을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의지와 성품을 중요시합니다. 청년 대학부나 선교단체, 시민단체의 리더 경력자는 우대하고 있지요. 매년 9~12월에 서류전형, 면접, 캠프를 통해 학생선발이 진행됩니다.

김 별도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 네, 직장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업하기도 힘들지만 그 직장에서 견뎌 내기도 참 힘듭니다. 리더십학교 졸업생들도 어렵게 취업해서 직장을 다니며 생각지도 못한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리더십학교에서 배



운 대로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들도 더러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졸업생들이 직장에서 탁월한 크리스천 직장인으로 살아가게 도울지 고민하다가 ‘직장인영성리더십아카데미(Spiritual Leadership Academy, SLA)’를 개설했습니다. 일터에서 영성과 역량으로 열매 맺길 원하는 2,30대 직장인 100인을 대상으로, 10주 과정, 토요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으로 총 60시간 진행합니다. 6기까지 진행된 SLA는 3가지 핵심 가치, Christianity, Competency, Community building을 따라 자기관리, 관계와 소통, 동기부여, 전략적 사고, 남녀차이, 재정관리 등 실제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리더십학교와는 다르게 진행되지요.

김 리더십학교의 커리큘럼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리더십 이론 및 강의도 있고 여러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매력은 아무래도 방학기간 동안의 해외 현장학습인 연수(Field-Study)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관 동역회에서든 기독미디어아카데미를 하



는데요, 12기까지 진행해 오며 어려운 점을 꼽는다면 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1년 동안 진행되는 리더십학교의 경상비도 만만치 않은데 해외 연수까지 한다면 엄청난 재정이 소요될 텐데요, 매번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이 최초로 시드머니를 후원한 곳은 여전도회전국연합회였어요.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던 때입니다. 당시 여전도회 회장님 숙원사업이 청년 지도자 양성을 위한 캠퍼스 선교였지요. 그래서 오랜 기간 캠퍼스 선교를 했던 저에게 캠퍼스를 섬기는 방법을 물으셨고, 그때 제가 한국리더십학교 설립계획서를 만들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학교 설립취지에 공감하여 후원금을 기부해 주셨는데, 제게는 그것이 학교를 시작해도 좋다는 하나님의 결재 신호로 보였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도 한국리더십학교의 이사로 섬겨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초창기에는 재정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나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는 인건비, 교회 유지에 있었고, 여력이 있어야 교회학교, 구제 또는 선교 사역에 쓰게 마련인지라 교회에 후원을 요청하기도 어려웠어요. 이사님들의 회비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지요. 지금도 재정은 늘 빠듯하게 진행됩니다만, 처음에는 사비도 많이 냈지요. 전세금을 줄여서 쓰기도 해봤고요. 눈물로 4~5년은 지냈습니다. 경상비

는 그럭저럭 넘어가는데 해외 현장학습 재정은 매해 막막합니다. 그런데 매번 신기하게 채워져요. 한 번은 떠나는 전 주까지 약 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떠나기 하루 전에 통장을 보니 그 금액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지는 않나요?

이 지금은 등록금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단법인으로 입회비 1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생회원이 되는 것을 권장합니다. 평생회원이 되면 월 2만원씩 회비를 납부하도록 권유하지요. 지난 해부터 월회비를 내는 동문들의 수가 300명이 넘어서 학교의 경상비와 동문활동 지원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6~7개 교회가 매월 얼마씩 후원해 주시고요. 하지만 숙식비, 세미나, 교통비 등 해외 연수비는 여전히 부족해서 동문과 이사님들에게 특별후원금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김 해외 현장학습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 리더는 교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현장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리더십 교육을 끝내고, 여름방학을 이용해 15~17일을 해외로 나가서 현장학습을 합니다. 사람마다 선호도가 다르지만, 현실적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리더십의 현장 미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대략 40개 기관을 방문하지요. 세계기구(UN, IMF, 세계은행 등), 정책연구기관(헤리티지 재단, 브루킹스연구소, 미외교연구원, 국립보건원), 세계적 NGO(인터액션, Teach for America, IJM, 미국암협회)를 방문하고, 그곳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강연을 듣고 질문합니다. 마지막 일정은 세계 최대의 크리스천 리더십 컨퍼런스라 할 수 있는 ‘리더십 씨앗’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현장학습을 다녀오면 학생들이 큰

충격을 받아서 돌아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기관들과 리더들을 만나며 눈이 열립니다. 나를 위한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 마음먹기도 하고요. 학생들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동기 부여가 됩니다. 학생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니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지금까지의 졸업생 중에는 교수도 있고, 창업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마음과 태도가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새롭게 정립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통일시대를 준비하겠다는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김 눈앞에서 학생들의 변화를 지켜본다는 것이 사역을 지금까지 지탱해 온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힘들기도 하지만 기쁨과 보람에 비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길에 고난만 있으면 누가 지속하겠어요?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제자입니다. 저는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제자였고, 그들에게 자신의 꿈을 맡기셨습니다. 제자된 우리도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아닐까요. 분단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오고, 통일의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그리고 통일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꿈꿉니다.

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제자들, 교수님의 신앙 고백 같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한국리더십학교의 표어입니다. 저를 이끌어 가는 신앙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이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삶의 일터 아닙니까? 내가 밟았던 삶의 현장, 그 어디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책임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요. 가정, 일터, 학교, 국회, 시장, 어디든지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나가야 합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삶이고 생활입니다. 이 삶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잇닿아 있어야 해요.

김 하나님 나라가 한국리더십학교의 모든 커리큘럼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네, 학교의 모든 커리큘럼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에 얽매어 하나의 생활인으로 살아갑니다. 생활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활에 얽매이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 먼저 구하는 것은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불행한 삶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 각 영역의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 지금의 이 모습일까 질문해야 합니다. 각 영역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과 떨어진 부분을 변혁해가는 것, 그리고 그 변혁을 감당할 다음세대를 길러내는 것이 저와 교수님과 같은 세대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김 하나님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한국리더십학교는 크리스찬 리더십을 교육하고 사회 지도자를 양성하며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크리스찬 리더십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종암 1동 29-26 고려대학교 교우회관 307호

한국리더십학교

02) 929-6898 | <http://www.leadershipkorea.org/>